

#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 The Types of Housing Life-Style and Preference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Space of Multi-Family Housing

김 미 희\*\*  
Kim, Mi-Hee

이 유 미\*\*\*  
Lee, You-Mi

###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designed to explore how the types of housing life-style relate to the preferences of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among multi-family housing residents.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self-administered to 278 female residents living in multi-family housing over 20 s pyong (66 m<sup>2</sup>) in the Kwangju area. General linear model/Duncan-test, and  $\chi^2$ -test were used in analyzing the data. In the preferences of internal spa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needs of an indoor garden, exercise spaces, and a front balcony and in the concept of the living room and the dining-kitchen by types of housing life-style. In the preferences of external spac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ferred type of housing, the preferred residential area, and in the need of an individual storage space and a walking path by types of housing life-style.

### I. 서 론

1970년 이후 정부의 정책은 주택의 양적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주택위주로 대량공급을 촉진하여 왔으며 현재는 공동주택의 주택점유 비율이 40%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방식과 공급가격의 규제는 주택시장을 파향적으로 만들면서 수요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공동주택의 내부구조는 획일적 기준에 의해 공급되어 다양화, 고급화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분양가 자율화조치가 취해짐으로서 소비자중심의 주거디자인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1세기 생활변화로써 인구의 고령화현상, 맞벌이 부부의 증가, 소비행태의 다원화, 그리고 소가족화와 독신가족의 증가 등의 가족구성의 변화가 예상되며 개성창출성향, 소유에서 향유로의 탈물질화성향, 상품선택의 문화지향화 등의 의식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다(송복, 1995).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의 개성화,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점점 그 점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거주자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층으로서 사용자의 특성이 파악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를 구분하는 계층적 특성으로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인 특성 등은 소비자 선호에 대한 예측성이 모호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한편, 생활양식은 사회학분야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화의 결과로서 간주하고 마케팅분야에서는 소비자를 구분하여 이해하기 위한 시장세분화의 개념으로 이용, 전개되어 왔으며, 이것이 개인의 서비스의 구매 및 소비의 영향을 주어서 개인과 가족집단의 소비패턴을 좌우하게 된다. 생활양식의 하위개념으로서 주생활양식은 인간이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행위체계를 의미한다. 인간의 행위는 단편적인 동작에서 총체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주생활양식은 후자를 의미한다(김미희, 1991). 따라서 소비자 집단을 차별화하는 새로운 특성으로서 주생활양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및 선호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문화 및 디자인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96학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학박사

\*\*\*전남대 가정관리학과 석사졸업

그동안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현재의 시점을 단편적인 시각에서 평가해왔을뿐 거주인의 미래주거환경선호경향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만약 소비자의 미래주거계획을 파악하고 있으면 공급자입장이나 소비자입장에서 유리하게 주택은 계획·디자인되고 공급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주거요구에 대응하는 공동주택계획의 다각적 접근을 위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주생활양식에 따른 주거내부·외부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생활양식의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주생활양식에 대한 하위구성개념이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지만 유형화를 시도한 몇 개의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최목화(1991)는 주거생활양식의 관련변인으로서 가구사용, 공간사용, 난방사용, 현재의 주거생활조건 등의 네가지를 포함시켜 주거생활양식을 유형화하였다. 즉, 재래식 기본생활유형, 재래식 가족중심생활유형, 절충식 가족중심생활유형, 현대식 기본생활유형, 현대식 사교·여가생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박영순(1994)은 주생활양식의 개념을 주생활에 관한 개인의 행위, 흥미, 의견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지는 주생활양식이라 정의하고 주생활양식을 정리정돈형, 장식추구형, 자기표현형, 실용추구형, 유행추구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허영숙과 조성희(1997)는 주생활양식을 주공간 구성방식에 관한 생활과 의식 그리고 주생활에 관한 생활공간과 기본태도 의식간의 대응관계로 해석하고, 주생활양식을 편리추구형, 개성중시형, 보수관행형, 전통격식형, 개인생활중시형, 현대합리형, 전통가족단란형, 현대가족단란형의 8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김미희와 문희정(1998)은 공간사용방식, 실내꾸밈태도, 주생활의식 등의 하위구성개념을 근거로 하여 주생활양식을 현대적 도시생활형, 자연·이웃환경중시형, 파시적 감성추구형, 소극적 개인생활형 및 전통적 관습추구형 등의 다섯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생활양식 유형화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다섯가지로 유형화한 김미희 외(1998)의 유형을 근거로하여 유형별 주거내부·외부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을 파악하였다.

### 2. 주거내부공간에 대한 선호

주생활양식과 주택내부공간에 대한 선호의 관련성연구를 살펴보면, 조성희(1994)는 생활의식과 주공간의식을 조사분석하여 각각의 의식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의식으로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유형화 결과, 현대합리형, 개성추구형, 가족단란형, 가족서열형, 전통격식형, 보수관행형 등의 6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공적공간 구성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현대합리형과 보수관행형은 L-DK형, 전통격식형은 L+DK형, 개성추구형과 가족서열형은 L-DK형과 L+DK형, 가족단란형은 다른 유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L-D+K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순 등(1994)은 도시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 선호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즉, 정리정돈형은 현대적 분위기를, 장식추구형은 화려한 분위기를, 자기표현형은 고전적 분위기를, 유행추구형은 개성적 분위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경(1994)은 주생활양식을 진보적 개인주의형, 개성적 활동형, 생활충실 표현형, 사회성 중시형, 소극적 합리형, 보수적 안정형, 전통적 관습형 등의 7개로 유형화하여 주생활양식에 따른 실내환경 선호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사회성 중시형, 소극적 합리형, 보수적 안정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거실을 독립실로 하고 식당과 부엌이 동일실로 이루어진 형태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요시하는 공간으로는 전통적 관습형은 거실과 식당이 넓은 것을 선호하였으며 개성적 활동형은 자녀방보다는 부부침실을 우선시 하였으며 전통적 관습형은 거실이외의 손님접대용 응접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거내부공간선호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공동공간 구성형태, 남향 배치 선호공간, 붙박이시설 설치경향, 공간의 상대적 크기, 선호하는 욕실의 형태 및 개수, 실내조경, 각 실의 요구도, 각 실의 개념 등을 선정하였다.

### 3. 주거외부공간에 대한 선호

주민공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간의 종류는 거주자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데, 거주자 특성과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와의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근로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공유공간 계획연구(이연숙과 이소영, 1986)에서는 연령, 가족생활주기, 수입 등이 연계된 유형임이 밝혀졌으며, 광주시 소형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미희

와 문희정, 1997)에서는 주부연령, 주부의 취업여부, 가족생활주기, 평면규모, 주택소유형태 등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김한수와 김재익(1995)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부 및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에서 외부공간인 공동공간 시설에 대한 주민특성별 지불의사 및 운영방식 등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현재의 거주자의 주요구 반영에는 이러한 사회통계학적인 속성 등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분석만으로는 질적으로 향상되고 다양화되어가는 주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우므로 거주자들의 주요구를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회통계학적인 요인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거주자 개인의 주거가치관, 주거생활태도, 주의식 등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미희외(1997)는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과의 높은 관련성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생활양식을 유형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거외부공간에 대한 선호성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주거외부공간의 특성으로 주민전용 공동공간의 활용성을 중시하여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 노인복지회관, 화단/채소밭, 수영장, 다목적 행사실, 공동휴게실, 공동놀이방 등을 선정하여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희망 주거 위치 및 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sup>1)</sup>은 광주광역시외에 거주하는 거주자들로서 자녀가 초, 중, 고, 대학교에 재학중인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의 표집에 있어서는 북구, 남구, 서구, 광산구 지역 등을 분류하여 행정구역별로 임의표집을 하였고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여 34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중에서 응답이 미비하거나 부실기재된 것과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을 제외한 총 27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주생활양식, 주거내부·외부공간에 대한 선호성향, 가족특성 등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주생활양식에 대한 조사도구는 주생활

양식의 유형을 현대적 도시생활형, 소극적 개인생활형, 과시적 감성추구형, 전통적 관습추구형, 자연·이웃환경중시형 등의 다섯가지로 구분한 김미희 외(1998)의 연구를 근거<sup>2)</sup>로 하였으며, 주거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대한 설문내용은 내부공간특성의 경우 김미희와 윤복자(1992a; 1992b), 김혜정(1995), 이선옥과 박두영(1995a, 1996b), 이연숙과 김미희외 2인(1990) 등을 참고로 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외부공간특성의 경우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공유공간 또는 주민전용공동공간에 대한 선행연구(김한수 외 1995; 문희정, 1996; 이연숙, 1995; 이연숙과 윤민경, 1994; 이연숙과 이소영, 1996) 등을 근거로 하여 설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주거내부·외부공간에 대한 선호에 대한 조사도구는 미래경향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5년뒤의 주택선택시를 가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 3. 조사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두단계로 이루어졌고 예비조사는 면접법을 이용하였고 본 조사에서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이 이용되었다. 조사시기는 1997년 9월 11일부터 1997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은 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군집분석, General Linear Model/Duncan-test, 교차분석 등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sup>3)</sup>

#### 1. 주거내부공간에 대한 선호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거내부공간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각 실의 요구도와 각 실의 개념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생활양식 유형별 각 실의 요구에 대한 선호는 실내정원, 앞베란다, 별도의 운동공간을 제외하고 다른 실(간이식당, 뒷베란다, 수납공간, 별도의 부부침실, 취미/서재, 별도의 손님실, 화장실, 식당, 현관, 안방, 다용도실, 부엌, 드레스룸, 가족실, 자녀방, 별도의 가사실, 거실)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 참고). 표 1에서 실내정원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자연·이웃 환경중시형이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 개인생활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자연·이웃 환경중시형이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소극적 개인생활형에 비하여 실내정원에 대한 요구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앞베란다에 대한 요구는 현대적 도시생활형이 가장 높았으

표 1. 주생활양식 유형별 각 실의 요구도\*

종속변인	mean	F	주생활양식 유형	Duncan
실내정원 (N=278)	4.25	2.54*	현대적 도시생활형	B
	4.10		소극적 개인생활형	B
	4.73		과시적 감성추구형	BA
	4.44		전통적 관습추구형	BA
	5.12		자연·이웃환경중시형	A
앞베란다 (N=278)	6.70	2.68*	현대적 도시생활형	A
	6.23		소극적 개인생활형	BA
	6.00		과시적 감성추구형	BA
	5.70		전통적 관습추구형	B
	6.54		자연·이웃환경중시형	A
별도의 운동공간 (N=277)	3.46	3.77**	현대적 도시생활형	B
	3.19		소극적 개인생활형	B
	4.32		과시적 감성추구형	A
	4.35		전통적 관습추구형	A
	3.60		자연·이웃환경중시형	BA

\*p < .05, \*\*p < .01.

\*8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

며, 전통적 관습추구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생활양식 유형별 차이를 보면, 현대적 도시생활형이 전통적 관습추구형에 비하여, 그리고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이 전통적 관습추구형에 비하여 앞베란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전통적 관습추구형이 가장 높았으며, 소극적 개인생활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과시적 감성추구형과 전통적 관습추구형이 현대적 도시생활형에 비하여, 그리고,

과시적 감성추구형과 전통적 관습추구형이 소극적 개인생활형에 비하여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다른 유형에 비해서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은 실내정원을 선호하고,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은 앞베란다가를 선호하였으며, 과시적 감성추구형과 전통적 관습추구형은 별도의 운동공간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디자인요소가 달라지므로 각 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고 본다.

주생활양식 유형별 각 실의 개념에 대한 선호성향은 실을 안방, 거실, 식당/부엌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으며, 거실의 개념과 식당/부엌의 개념에서만 집단간의 차이가 있었다.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거실의 개념에 대한 선호는 전반적으로 거실을 가족간의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란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전통적 관습형과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인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주생활양식에 따른 식당/부엌의 개념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현대적 도시생활형, 소극적 개인생활형은 식당/부엌을 식사만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고, 과시적 감성추구형과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은 식당/부엌을 식사뿐 아니라 가족간의 휴식, 대화가 이루어지는 단란공간으로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과시 감성추구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식당/부엌을 식사와 단란공간이외에 손님접대

표 2. 주생활양식 유형별 거실의 개념

(단위: %)

응답범주	현대적 도시생활형 N=69	소극적 개인생활형 N=46	과시적 감성추구형 N=58	전통적 관습추구형 N=34	자연·이웃환경중시형 N=66	전체 N=273	$\chi^2$
가족단란	62.3	56.5	55.2	73.5	80.3	65.6	12.7* df=4
가족단란+접대공	37.8	43.5	44.8	26.5	19.7	3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5.

표 3. 주생활양식 유형별 식당/부엌의 개념

(단위: %)

응답범주	현대적 도시생활형 N=69	소극적 개인생활형 N=47	과시적 감성추구형 N=58	전통적 관습추구형 N=33	자연·이웃환경중시형 N=65	전체 N=272	$\chi^2$
식사공간	52.2	57.4	24.2	45.5	41.5	43.8	23.4** df=8
식사+단란공간	33.3	21.3	44.8	42.4	47.7	38.2	
식사+단란+접대공간	14.5	21.3	31.0	12.1	10.8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p < .01.

를 위한 공간으로 보다 높게 인식하는것으로 나타났다(표 3). 따라서 소비자의 주생활양식이 과시적 감성추구형이거나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인 경우는 식당/부엌의 공간계획시 가족간의 단란행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집단이 과시적 감성추구형인 경우는 식당/부엌에서 손님접대를 요구하므로 디자인상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본다.

**2. 주거외부공간에 대한 선호**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거외부공간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주택유형, 희망하는 주거지역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는 주생활양식 유형별로 각 세대별 보관창고와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세대별 보관창고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과시적 감성추구형이 가장 높고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과시적 감성추구형이 전통적 관습 추구형과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에 비하여, 그리고 현대적 도시생활형이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에 비하여 각 세대별 보관창고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도는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이 가장 높고 소극적 개인 생활형이 가장 낮다. 주생활양식 유형별 차이를 보면,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이 소극적·개인생활형이나 전통적 관습 추구형에 비하여, 그리고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과시적 감성추구형이 소극적 개인생활형에 비하여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민전용공동공간을 계획할 경우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과시적 감성추구형은 특히 각 세대별 보관창고를 배려해야 할 것이고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은 녹지공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희망 주거지역에 대한 선

**표 4. 주생활양식 유형별 주민전용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

종속변인	MEAN	F	주생활양식 유형	Duncan
가 세대별 보관창고 (N=276)	2.72	3.56**	현대적 도시생활형	BA
	2.43		소극적 개인생활형	BAC
	2.81		과시적 감성추구형	A
	2.35		전통적 관습추구형	BC
	2.25		자연·이웃환경 중시형	C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 코스 (N=278)	3.58	2.77*	현대적 도시생활형	BA
	3.30		소극적 개인생활형	C
	3.59		과시적 감성추구형	BA
	3.35		전통적 관습추구형	BC
	3.64		자연·이웃환경 중시형	A

\*p < .05, \*\*p < .01.

\*7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요구도가 높음.

호도는 표 5와 같다.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소극적 개인생활형은 주거에 편리한 주택단지를 선호하고 과시적추구형과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에 편리한 주택단지는 현대적 도시생활형이, 그리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이 가장 희망하는 주거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현대적 도시생활형과 소극적 개인생활형은 주택유형 중에서 고층아파트를 가장 선호하고, 과시적 감성 추구형과 전통적 관습추구형은 저층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은 자연·이웃환경 중시형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을 알 수 있었다(표 6). 따라서 소비자의 특성이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이라면 공동주택의 외부공간 계획시 단독주택의 장점인 뜰, 정원 등의 녹지중심의 옥외공간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화된 소비자의 주거욕구에 대응하

**표 5. 주생활양식 유형별 선호하는 거주지역**

(단위: %)

응답범주	현대적 도시생활형 N=58	소극적 개인생활형 N=39	과시적 감성추구형 N=48	전통적 관습추구형 N=27	자연·이웃 환경중시형 N=64	전체 N=236	$\chi^2$
주거에 편리한 주택단지	67.24	61.54	47.92	51.85	40.63	53.39	10.43* df=4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	32.76	38.46	52.08	48.15	59.38	46.61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p < .05.

표 6. 주생활양식 유형별 선호하는 주택유형

(단위: %)

응답범주	현대적 도시생활형 N=66	소극적 개인생활형 N=43	과시적 감성추구형 N=54	전통적 관습추구형 N=32	자연·이웃 환경중시형 N=65	전체 N=260	$\chi^2$
단독주택	30.30	27.91	46.30	34.38	58.46	40.77	24.14** df=8
저층아파트	22.73	20.93	33.33	28.13	16.92	23.85	
고층아파트	46.97	51.16	20.37	37.50	24.62	35.38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p < .01.

기 위해 사용자 집단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예측변인으로서 주생활양식을 근거로 하여 주생활양식의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성향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공동주거 계획시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주생활양식 유형별로 주거내부·외부공간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거내부공간에 대한 선호도에서는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일부 공간에 대한 요구도와 각 실의 개념에서 차이를 보였고 주생활양식 유형에 따른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는 미약했으나 희망 주거지역과 주택유형은 주생활양식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주생활양식 유형이 소비자를 세분화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소비자 특성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앞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각 주생활양식 유형별 선호하는 아파트 내부·외부공간특성을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각 주생활양식 유형별 공동주택계획의 디자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생활양식 유형이 현대적 도시생활형인 집단을 위한 공동주택계획은 내부공간디자인에서는 앞배란다를 중시하고 주민전용공동공간 중 각 세대별 창고와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디자인을 고려하며 주거단지의 위치는 편리한 곳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소극적 개인생활형을 위한 공동주택계획의 디자인 전략은 단지계획시 그 위치를 거주하기 편리한 것으로 선정하고 고층화해야 할 것이다. 과시적 감성추구형을 위한 디자인 전략은 각 아파트 단위공간

표 7. 주생활양식 유형별 내부·외부공간특성에 대한 선호성향

유형	내부·외부공간 특성
현대적 도시생활형	내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앞배란다에 대한 요구가 높고, 실내정원과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 가족단란을 위한 거실과, 식사만을 위한 식당/부엌을 선호한다.
	외부 각 세대별 창고,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 다른 유형에 비하여, 선호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고, 고층아파트, 주거에 편리한 단지를 선호한다.
소극적 개인생활형	내부 실내정원과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매우 낮고, 식사만을 위한 식당/부엌을 선호한다.
	외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는 낮고, 주거에 편리한 단지과 고층아파트를 선호한다.
과시적 감성추구형	내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거실에서 가족단란뿐만 아니라 손님접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식당/부엌에서도 식사뿐만아니라 가족단란, 손님접대를 원한다.
	외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각 세대별 보관창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거주지역과 저층아파트를 선호한다.
전통적 관습추구형	내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별도의 운동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고, 가족단란을 위한 거실을 선호한다.
	외부 각 세대별 보관창고와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비교적 낮다.
자연·이웃 환경중시형	내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실내정원과 앞배란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가족단란을 위한 거실공간을 선호한다.
	외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잔디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각 세대별 보관창고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으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주거단지과 단독주택의 특성을 선호한다.

의 내부에 별도의 운동공간을 계획하고 거실 및 식당/부엌의 디자인시 가족단위뿐만 아니라 손님접대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주민전용공동공간에 각 세대별 보관창고를 설치하며 단지의 위치는 편리성보다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저층디자인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관습구조형을 위해서는 내부공간에 별도의 운동공간을 고려해야한다. 자연·이웃환경중시형을 위한 디자인 전략은 내부에 실내정원을 계획하고 앞베란다를 세심히 배려해야 하며, 특히 옥외에 산책로 및 조깅코스 등 녹지공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주거단지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공동주거 계획시 주생활양식 유형화가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하는 유용한 변수임을 인식하여 주생활양식에 대한 포괄적인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대상이 광주시의 공동주택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조사대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조사대상자 특성의 자세한 사항은 김미희 외 (1998)를 참고하십시오.
- 2) 주생활양식 유형별 주요특성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부록에 제시함.
- 3) 결과 중에서 유의한 것만 제시.

참고문헌

1. 김미희 (1991).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 생활양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 김미희, 문희정 (1997). 소형아파트 거주자들의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8), 26-34.
3. 김미희, 문희정 (1997).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8(3), 91-98.
4. 김미희, 문희정 (1998).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7), 게재예정.

5. 김한수, 이재익 (1995).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11), 111-121.
6. 김혜정 (1996). 가족유형에 따른 공동주택 선호성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12), 27-38.
7. 박영순 외 (1994). 도시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 선호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1), 17-27.
8. 송복 (1995). "21세기 사회와 공동체 생활문화".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미래주택 단지개발의 방향. 연세대학교 학술대회집, 9-22.
9. 이연숙 (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10. 이연숙, 김미희, 오찬옥, 이숙영 (1990). 서울근교 신주거계획지역 거주예정자의 특성 및 주거환경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산학협동재단연구수혜비미간행 보고서.
11. 이연숙, 윤민경 (1994). 중산층 맞벌이 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 계획연구.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8, 74-83.
12. 이연숙, 이소영 (1996). 거주자 요구를 기초로 한 공유공간 계획연구-근로자 아파트를 대상으로-.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0, 48-57.
13. 윤복자와 4인 (1994). 서울거주자의 계층별 생활양식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241-250.
14. 조성희 (1994). 아파트 단위평면계획을 위한 거주자의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0(2), 141-151.
15. 조현경 (1994). 주요구의 다양화에 따른 실내환경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최목화 (1991). 현대도시의 주거생활양식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2(1), 1-12.
17. 허영숙, 조성희 (1997). 집합주택 계획을 위한 주생활양식 유형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12), 35-45.
18. Yvonne, B. (1991). Evolution of Life Styles and Dwelling Practices in france. *The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8:3.
19. Weisnea, T.S. and J.C. Weibel (1981). Home Environments and Family Lifestyle in California. *Environment and Behavior*, 13(4), 417-460.
20. Wenting, J.W. (1995). *Housing by life-style*. N.Y: Magrow-hill, Inc.

**<부록> 주생활양식 유형별 제반특성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유 형	사회 인구학적 특성	제 반 특 성
현대적 도시생활형	다섯유형 중 40세 미만인 주부들과 초등교육기 이하 집단, 320만원 이상인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소유자의 비율이 5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학력은 조사대상의 평균적인 분포와 유사하다.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적인 분포와 유사하다. 40~50평대의 주택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부엌/식당공간을 중시하며 집치장, 실내장식 등 주택에 관심이 많고 유행에 민감하며 디자인 보다는 실용성을, 자연보다는 인공적 편리성을 선호하는 특성을 갖는 집단
소극적 개인생활형	다섯유형 중 50세 이상인 주부와 160만원미만인 가구,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취업주부와 비취업 주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전체 평균과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 행정관리직이 5유형 중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1~30평, 30~40평대의 주택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실내장식이나 기념품 등 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고 유행에 둔감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동조성이 강하고 자연보다는 인공적 편리성을 선호하는 집단
과시적 감성추구형	다섯유형 중 50세 이상인 주부들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과 비취업주부들이 5유형 중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 중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50평이상의 주택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자신의 개성이나 지위를 표현해야 한다는 주택과시적 성향이 강하고 부엌/식당을 중시하며 사생활보호와 자신만의 개성을 중시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분위기와 기념품, 예술성 등에 관심이 높은 반면, 지역사회 참여의식이 낮은 집단
전통적 관습추구형	다섯유형 중 40-50세 미만인 주부들, 자녀성년기, 취업주부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고졸이하의 주부들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다. 남편이 전문직과 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다섯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며, 40-50평대의 주택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안방에서 손넙집대와 가족단란에 대해 긍정적이며 주택의 실내장식이나 구조변경 등에 관심이 별로 없고 유행에 둔감하며 자연환경을 중요시 하지 않으며 지역사회 참여의식이 낮은 집단
자연·이웃 환경 중시형	다섯유형 중 중등교육기, 160-240원 미만인 가구, 남편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으며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부들이 대졸이상의 주부들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취업, 비취업주부의 분포와 주택의 평면규모, 주택의 소유형태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과 유사하다.	인공적인 편리성 보다는 자연환경을 추구하고 지역사회 참여의식도 높으며 집안의 정리정돈을 중시하는 반면 주택의 과시적 성향이 적은 집단

\*출처: 김미희외(1998)의 논문 중 표 6과 표 8을 재구성한 것임.